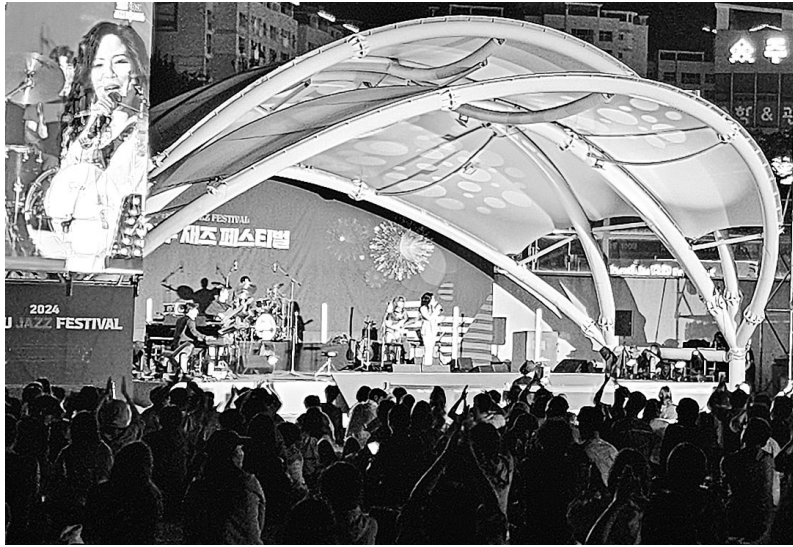


예술 섬 ‘장도’에 파도치는 재즈 선율



여수 장도 잔디광장에서 오는 6월 7일 ‘2025 여수재즈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지난해 페스티벌의 모습.



〈여수시 제공〉

‘예술의 섬’이라 불리는 여수 장도.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단 하나,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두 번 바닷물에 잠기는 진섬다리다. 물이 들면 다리는 자취를 감추고, 섬은 마치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는 듯한 풍경을 드러낸다.

이 독특하고 몽환적인 섬에 재즈의 선율이 스며든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리듬이 장도의 정적을 깨우고, 작은 섬은 하나의 무대 되어 관객을 맞는다.

여수시는 오는 6월 7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도 잔디광장에서 ‘2025 여수재즈페스티벌’을 연다(우천 시 예울마루로 장소 변경).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친환경 소풍’. 잔디밭 위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장도의 푸른 바람과 자연을 벗 삼아 재즈 선율에 귀 기울이는 순간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는 침표이자, 특별한 소풍처럼 다가올 것이다.

페스티벌의 시작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S재즈밴드’가 장식한다. 1960년대 클 재즈부터 스윙, 모던재즈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이들은 옛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 더 클로버스의 ‘One Mint Julep’ 등 재즈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명곡들로

다음달 7일 ‘여수재즈페스티벌’ 잔디광장서 푸른 바다 벗삼아 한영애 밴드·마리아 킴 켈렛 등 정상급 뮤지션과 재즈의 정수 만끽

초여름 밤을 시원하게 열어줄 예정이다. 이어서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한영애가 이끄는 ‘한영애 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혼성 블루스록밴드 ‘신촌블루스’ 출신인 그는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이 돋보이는 ‘화귀’, ‘누구없소?’, ‘조울’ 등 대표곡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성과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세계 재즈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 마리아 킴이 주축이 된 ‘마리아 킴 켈렛’도 관객과 만난다. 피아노를 치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국내외의 재즈 팬들을 매료시켜온 마리아 킴의 무대는, 재즈 애호가는 물론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블루스의 본고장 미국에서 최근 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도 출연한다. 감각적인 사운드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거대한 현수막으로 꾸며진 포토존에서는 장도의 풍경을 배경 삼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부스도 운영돼 마스크트 ‘다섬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이 이어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무료로 진행되며, 여수재즈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페스티벌을 담당할 강행숙 여수시 문화예술과장은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초여름 밤의 정취 속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며 “1·2차 입장권 예매가 단 3·4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즈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은 예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삶의 지혜 묻어나는 노 시인의 단상

손형섭 목포대 명예교수, 두번째 시조집 ‘새벽’ 발간

원로 시인 손형섭(사진) 목포대 명예교수가 두 번째 시조집을 펴냈다.

작년 첫 시조집 ‘눈 내리는 저녁’을 발간한 후 1년 여 만에 작품집 ‘새벽’ (서석)을 발간한 것. 시인은 당초 시로 시작해 ‘별빛’, ‘겨울 나그네’와 같은 창작집을 발간하며 시에 대한 열정을 풀어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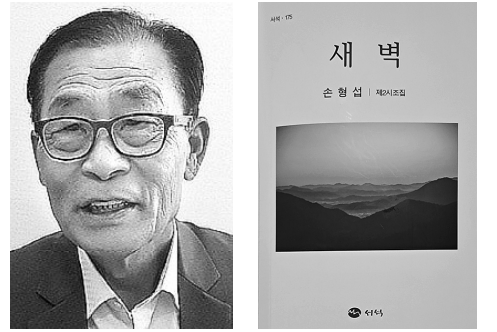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시인은 시조로 문학적 여정을 확장하며 작품 창작에 열정을 쏟고 있다. 시조의 압축과 운율이 주는 울림의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엄격하면서도 내재적인 규칙이 있는 시조는 기존 장르와는 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이번 시조집은 1부 ‘첫차’를 비롯해 2부 ‘고향의 강’, 3부 ‘가을 산책’, 4부 ‘첫눈’, 5부 ‘인연’, 6부 ‘전라도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계절을 각각 모티브로 형상화한 68편과 삶과 시대의 모습을 담은 32편의 시는 사유의 폭이 깊고 넓다.

‘몇천 번/ 다그쳐야/ 둥글게 되는 걸까// 몇천 도/ 견뎌 내야/ 소리가 나게 될까// 몇천 년/ 기다려야만/ 채워질 수 있을까.’(‘빈 항아리’)

위 작품 ‘빈 항아리’는 기다림과 인고의 미학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항아리를 단순한 사물이 아닌 생명을 지닌 하나의 주체로 상정한다. 즉, 한 사람의 인간으로 치환함으로써 의미가 풍성해진다. 둥글게 되는 것, 채워지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성숙과 인격의 도야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 시인은 항아리를 통해 인생은 결국 동



글어지고 채워져 가는 과정임을 노래한다. 삶의 지혜와 연륜이 묻어나는 노 시인의 단상은 ‘죽비’처럼 다가온다.

시조집을 펴내게 된 데 대해 손 시인은 “막상 단 시조를 쓰면서 느낀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며 “한 편의 단시조를 쓰기 위해 얼마나 깊은 사색과 성찰이 필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화산 출신의 손 시인은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거쳐 전남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목포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학예술’ 불호에 시로, 2023년 ‘월간문학’ 9월호에 시조로 등단했다. 4권 시집 외에도 수필집 ‘삶의 흔적’ 등 3권을 펴냈으며 한국문학예술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과 광주시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생님들을 위한 ‘국악 수업’

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16~20일 연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8월 진행하는 ‘하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연수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이 8월 진행되는 ‘2025 하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국악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40명 모집.

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국악 실기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전통예술 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국악 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연수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총 3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통과목으로는 ‘국악이

론’, ‘장구 반주법’, ‘사물놀이’, ‘민요와 판소리’ 수업이 마련됐으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직접 배우는 ‘강강술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단소’와 ‘소금’을 다루는 선택과목도 준비돼 있어 교육 실기 지도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원 장악과 선안이 홍보담당은 “지난해 연수는 접수 시작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고, 만족도 역시 98%에 달했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국악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40주년 고창농악보존회 기념사업추진위 공식 출범

고창농악보존회(보존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기념사업에 돌입했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지난 22일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향후 1년 여 간 이어질 사업 윤곽도 공개됐다.

위원회는 보존회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 전통예술 전문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중심 기획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원장은 이명훈 보존회 고문이 추대됐다.

위원회는 ‘고창농악보존회 40년사 편찬’, ‘고(故) 박성근·김만식·이모질 선생 기념비 조성’, ‘창립 40주년 기념공연 품무’, ‘기념식과 제2회



고창농악보존회가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이뤄진 추진위 발대식 모습. 〈고창농악보존회 제공〉

무형유산발표회’ 등 네 가지 사업을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훈 위원장은 “이번 기념사업은 과거의 발자취를 되짚는 동시에 고창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오

늘과 미래로 잇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살아 있는 전통인 고창농악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



DK
디케이 주식회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